



“2015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일시 : 6.24 ~ 6.26

장소 :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한국정보과학회가 주최한 KCC 를 다녀와서...

최광훈교수님 하에 고명필 조교와 최지선 학우랑 함께 학회를 참여했다.

논문주제는 “앱 스토어 관리 자동화를 위한 인텐트 스펙 기반 안드로이드 앱 검사 방법”이었다. 학부생 연구실 인턴에서 학회 논문 포스터발표까지 폭 넓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학회는 한국기술기술원에서 많은 연구결과를 들고 제일 많이 참가하였던 것 같다. 쟁쟁한 학교들이 많았던 가운데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경험은 학부생이 경험 할 수 있는 경험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회라는 것은 연구하였던 연구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신 기술들과 현재 연구가 이루어지는 많은 부분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최신 트렌드까지 습득 할 수 있는 폭 넓은 경험의 장이 되는것 같다.

학회 참석 후 나는 컴퓨터 연구분야는 넓고 그 깊이는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주도에서 열린 학회라 학회뿐만 아니라 한 학기동안 지친 몸을 힐링까지 할 수 있었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이었다. 학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다양한 준비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또 참가하고 싶다.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를 다녀와서

2013253062 최지선



우리는 ‘앱 스토어 관리 자동화를 위한 인텐트 스펙 기반 안드로이드 앱 검사 방법’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가지고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학회를 가서 가장 먼저 프로그램 언어 섹션에서 발표하는 걸 2개 들었다. 세미나를 더 듣고 싶었지만 포스터 발표가 시간이 겹쳐서 더 듣지 못했다. 세미나 주제 중 1개는 같은 코드들을 찾아내는 툴이었고 하나는 카이스트에서 낸 논문이었는데 수학식이 막 들어가 있는 분석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나는 학회가 되게 지루한 분위기 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재밌었다. 흥미로운 주제들도 많았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 낸다는 것도 신기했다. 내려가서 포스터 발표를 준비하고 나는 거의 시작하자마자 발표를 했는데 내 생각에 발표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다. 너무 긴장을 해서 말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버벅댔는데 마지막에 감독관이 “굉장히 어려운걸 하셨네요.” 라고 하고 가서 안심이 좀 됐다. 감독관이 가고나서 단국대 학생들이 몰려와서 우리 주제에 관해서 관심을 보였다. 비슷한 주제로 연구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더 유연하게 잘한 거 같다고 감탄하고 갔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더 궁금하면 메일 보내겠다면서 메일 주소도 알아갔다. 우리 포스터 발표는 생각보다 지켜줬는데 오후에 명필오빠 포스터 발표는 재밌었다.

오빠가 발표할 때는 확실히 대학원생이여서 그런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4명 정도 관심을 보였고 명필오빠는 덕분에 발표를 5번이나 했다. 오빠가 발표하는 동안 다른 섹션들을 둘러보았는데 우리랑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한건 없는 것 같았다. 색다른 경험이었고 시야가 넓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혼자가 아니라 성빈오빠랑 명필오빠도 같이 가서 더 재밌었고 다음에는 전부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